

## 몸속의 세포를 느끼고 세포 속의 영혼을 느끼라.

Person who does not feel every cell of his body and who does not find his soul in every cell of his body cannot treat himself at all. (Ilkin Santak)

자신의 몸속에 있는 모든 세포를 느끼지 못하는 사람과 자신의 몸의 모든 세포 속에 있는 영혼을 찾지 못하는 사람은 결코 자신을 치유할 수가 없다. (아일킨 산탁)

더위가 한창 기승을 부리더니 지역적으로 내린 폭우는 사람들의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세상사는 언제나 양면성이 있습니다. 자연은 사람을 즐겁게 했다가 슬픔을 주었다 합니다. 사람들은 더울 때는 비를 그리워하고, 비가 많이 내리면 또 햇볕을 기다립니다.

자연 현상과 사람의 마음이 그렇다면 우리는 매 순간 일어나는 현상에 대해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결국은 일어나는 자연 현상과 자신의 몸속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해 스스로 대처할 힘을 길러야 합니다. 자연 현상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할 수는 없지만, 그에 대한 대응은 우리가 선택할 수 있고, 우리의 몸에서 일어나는 현상이나 문제는 몸의 주인인

우리가 통제하고 치유하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의 몸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는 모든 감각을 개방하고 동원하여야 합니다. 우리 몸은 자신을 치유할 수 있는 회복력(자연 치유력)을 가지고 있으므로, 우리가 몸속의 세포의 움직임을 느낄 수 있다면 우리의 몸에 생기는 이상을 치유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몸과 마음은 하나의 체계이기 때문에 세포 속의 영혼을 느끼는 것도 가능할 것입니다. 몸속의 세포를 느끼고 세포 속의 영혼을 찾는 것은 곧 자연치유의 시작입니다.

수시로 변하는 자연 현상과 몸의 변화에 대해 적절히 대처하고 치유할 수 있는 감각적 민감성을 지닌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